

이해와 경계

갤러리 블랭크

맹인모상(盲人摸象),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다. 사실 장님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코끼리의 세부에 대해 무지하다. 가까운 동물원 혹은 아프리카 대륙의 초원에서 코끼리를 목격한 적이 있거나 코끼리를 만져보고 트래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사물이나 풍경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그려내고, 특정한 부분을 촬영한 정승일의 작품을 대면한 감상자는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 전체를 파악하듯 이런 저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 맹인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온전히 대상을 알아내려는 열망으로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가느다란 스틸파이프들이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다. 카메라는 아마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것일 터, 흑백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온통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주위의 환경이 마치 시멘트처럼 파이프의 은빛을 더욱 차갑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자세히 보면 관과 관을 이어주는 마디가 보이고, 위로부터 관을 잡아주는 단단한 고정 나사도 보인다. 등글게 휘어져 있기도 하고, 끝을 단단하게 막아놓기도 한 이 관들 표면에 'HYUNDAI HYSCO 강제전선관'이라고 새겨진 글귀로 인해 '우리나라에 위치한 곳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고, 또한 이 관 안에는 전선이 내장되어 있을 거라 예상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낡지 않은 제법 깨끗한 모습에서 최근에 지어진 어느 건물의 인테리어 일부를 촬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작가가 대체 이 장소에는 어떠한 사연으로 가게 되었는지, 건물의 많은 부분 중에서 왜 굳이 스틸파이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이전 작품에서 스파게티 면을 전시장과 눈에 촘촘하게 꽂아 동서양의 문화에 관해 다룬 <추수>(2011)와 <모내기>(2007) 비디오 작업들을 떠올려 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되어 무엇을 이동시키거나 연결시키는 관들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적절했을 수 있겠다는 짐작을 해보게 된다.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잔디 운동장과 트랙이 보이는 풍경도 마찬가지다. 레인이 열 개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 제법 크고 공식적인 행사가 치러진 장소일 것이다. 경기가 있던 시간만큼은 치열하고 뜨거웠을 공간이 현재는 비워진 바닥과 함께 고요하기만 하다. 정승일은 점, 선, 면이 이루는 패턴과 같은 조형적 요소에 매력을 느껴왔기에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것들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을 것이다. 작품들의 제목은 각각 <구조>와 <면 분할>. 작품만큼 제목도 싸늘하다.

텅 빈 풍경은 <기구들>시리즈에서도 이어진다. 사용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운동기구는 정면에서 흑백으로 촬영되었다. 이 기구들은 작가의 눈에 여느 미술작품보다 나은 조형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니 매끈하게 마무리된 모습에서 사방에 널린 조잡한 조형물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법하다. 기구들이 놓여 있는 바닥은 반듯한 사각 프레임을 갖추었으며, 조금씩 습기가 올라온 블록들이 주변으로 정비되어 있다. 부조처럼 입체적인 타일이 붙여진 담벼락의 은은한 빛에서 좌우로부터 발하는 확산광이 느껴진다. 다시 중앙에 놓인 운동기구를 들여다보면 발판과 작은 의자, 그리고 기구의 부분을 이어주는 볼록하고 까만 점들이 눈에 띈다. 벽면의 하수관 파이프와 앞쪽에 놓인 기구를 겹치게 놓아 연결된 것처럼 촬영된 사진도 있다.

정승일은 피사체의 본 쓰임새가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낸 이미지 자체가 작품으로 전달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전과는 다른 맥락으로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작가의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자는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가 아

는 선에서 인식되는 요소들을 나열하며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을만한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해석의 해석을 거듭한다. 더 나아가 상상이 아닌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더듬거리며 그의 사진을 바라보다 드로잉을 마주하면 조금은 더 작가의 생각을 납득하게 된다. 반복되는 선들이 이루는 면과 구조, 기하학적인 면들이 만들어내는 밝음과 어두움.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화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야기가 있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다. 전시된 사진과 드로잉은 정승일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작품의 일부로서 차분히 자라가고 있는 그 내면의 구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노트나 작업의 전개방식만을 보아도 그러한 면들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완성작품 자체의 미를 즐기는 것과 작업을 온전히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는 행위 중에서 중요도를 가리는 일은 현대미술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되었다. 정승일이 제시하는 바라보기의 방법을 따라 대단한 답을 찾으려는 집념 대신 조각조각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자.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 가다보면 뜻밖의 가치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Understanding and Boundaries

GALLERY BLANK

There is a saying that if a blind person touches an elephant, he is likely to jump to a conclusion without knowing the details. Actually, the majority of people — who are not blind — are clueless about the details of elephants. Even if they have seen elephants at a nearby zoo or touched elephants in African grassland, they still don't know much about elephants. The photos of Seung-il Chung are rather abstract. When people see the pattern of objects or landscapes and various parts, they have to guess the meaning — just like blind people. However, when they perceive themselves as a "blind person," they become more careful and serious about exploring the objects in the photo.

Lots of thin steel pipes are lined up next to each other. The surrounding, which is filled with achromatic colors, makes it look like a black-and-white photo with chilling silver color pipes. Up close, viewers can see joints connecting each pipe fixed by the solid clamping screws at the top. The pipe surface is curved with closed ends and the message 'Hyundai Hysco rigid steel conduit' The location may be somewhere in Korea and the pipes may have wires inside. Or it may have been shot in a new building, given that the pipes look new and clean.

It is unknown why the artist went to this place and why he paid attention to the steel pipes among all the objects in the building. However, his previous works such as <The harvest>(2011) and <The plant>(2007), video works dealing with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through spaghetti noddles, provide a clue. Thinking about an

invisible place, he may have used pipes to tell a story about their relationship, which are used to move or connect things.

The same goes for a clean, well-maintained grass stadium and tracks. As there are more than ten lanes, it must be a fairly big stadium for official events. It may have been a place of fierce competitions, which is empty and quiet now. Seung-il Chung probably came across the scene accidentally and shot the scene right away; he was driven by his fascination with visual elements such as patterns of points, lines, and planes. The works are entitled <Structure> and <Plane Division>. The cold titles match the content of the works.

An empty scene is also used in <Equipment> series. The black-and-white shots of equipment were shot at the front without users in the picture. To the eyes of the artist, the equipment seemed like an attractive artwork. Given the sleek surface, the equipment look more attractive than other visual objects all over the place. The equipment are placed on a square-framed floor surrounded by blocks with moisture. The wall has relievos that look like three-dimensional tiles and the dim light seems like diffused light heading from side to side. Looking closely at the exercise equipment in the middle, you can see a foothold, small chairs, and black spots connecting the equipment. In some shots, the sewer pipes on the wall and equipment in front look like they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s they are placed on top of each other.

Seung-il Chung highly values the "image" of objects when delivering the meaning of his works. In other words, he focuses on the image, rather than an object itself. Also, he portrays the object differently each tim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his creativity. Thus, the viewers have to use their imagination and analytical skills to understand his works by linking various elements with the image. Furthermore, his works require a clear interpretation, rather than an imagination, at times.

Besides his photos, the displayed drawings reveal his thoughts more clearly. The sides and structure created with repeated lines and brightness and darkness created with geometric sides may not necessarily tell a story; they may represent his thoughts and emotions instead. The photos and drawings are part of his works, which represent his inner world growing slowly. It is indicated in the photographer's notes and his work styles.

In modern art, it is not clear which is more important: enjoying the beauty of artworks or understanding their meaning with analysis. Seung-il Chung suggests that we should enjoy every piece of artworks, instead of finding a profound meaning. Since an artwork is formed with multiple pieces, you may come across a valuable meaning as you put together all the scattered pieces.